

내년도 해외건설 - 40억 달러 수주 규모 유지 전망

- 올 연말 500억 달러 돌파 여부에 관심, 토건및 아시아지역 수주도 증가 추세 -



리먼브라더스사태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의 침체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에도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금융 위기 여파가 우리 해외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미국이나 유럽 자본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중동 지역의 도급 공사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수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건설수주는 중동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아

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중별로도 플랜트, 토건 등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건설업체나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신기록 행진... 10월 말 43억 달러 수주

2008년 해외건설 수주는 고유가에 따른 중동건설시장 호황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기록 경신을 거듭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43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하였으며, 연말까지 50억 달러의 돌파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있으며 2007년에 이어 신기록 경신 행진이 계속되었다. 지난 3월 3일 사상 최단기간 10억 달러 수주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10월 6일에는 2007년의 39억 달러를 초과하여 4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해외건설 수주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10월 말 현재 해외건설 수주는 43억 달

지역별 수주 실적

(단위: 건, 백만달러, %)

지역별	1995. 1. 1 현재		2007. 10. 30		2008. 10. 30		전년 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24	295,864	488	30,457	531	43,382	142.4
중동	2,673	173,553	108	18,272	131	26,156	143.2
아시아	2,996	91,405	291	8,786	319	11,854	134.9
중남미	80	6,522	8	278	11	2,469	887.1
아프리카	241	9,792	25	1,397	31	1,287	92.1
유럽	135	8,194	21	1,344	20	1,080	80.4
기타	399	6,398	35	380	19	536	141.0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위: 건, 백만달러, %)

공종별	1965. 1. 1 현재		2007. 10. 30		2008. 10. 30		전년 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24	295,864	488	30,457	531	43,382	142.4
토목	1,566	71,872	62	3,418	98	7,154	209.3
건축	2,227	87,904	101	5,705	114	8,260	144.8
플랜트	1,104	123,811	64	20,386	74	26,259	128.8
전기	432	7,418	37	586	52	1,126	192.2
통신	77	2,079	4	40	3	19	47.0
용역	1,118	2,780	220	322	190	564	175.2

를기록중이다. 지역별로는중동지역에서 총 13건 26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실적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전체 수주의 75%에 해당하는 197억 달러가 플랜트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당 평균 규모도 6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웨이트, UAE, 카타르, 사우디 등 GCC 산유국들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설비, 발전소 수주가 이어졌다.

아시아에서도 수주 호조가 이어져 전체의 27%인 11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등에서 가스 및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소, 신도시개발등의수주가증가하여지난해의두배가넘는실적을기록하였다.

이 밖에 중남미에서도 25억 달러의 수주가 성공하면서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13억 달러를 수주하여지난해의 14억 달러에비해수주금액이 다소감소하긴했지만 2007년 이후나이지리아, 앙골라등을중심으로10억달러이상을지속적으로수주하면서안정적인시장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공종별로는플랜트가26억달러를차지하여 전체 실적의 61%를 차지하였다. 플랜트프로젝트는중동에서만19억달러를수주하여 오일머니 급증에 따른 플랜트 설비 발주 증가를 감안하게하고있다. 쿠웨이트에서전체 64억달러규모정유공장을패키지별로 나누어 수주하였으며 카타르, 바레

인 등에서 각각 20억 달러 내외의 민자 담수발전프로젝트수주에성공했다. 이밖에 아시아와 중남미에서의 수주 금액도 발전소, 가스처리 시설 등을 위주로 각각 27억 달러와 25억달러를기록하였다.

토건 부문도 지난해의 상승세가 이어져 총 154억달러를수주함으로써전체수주의 35%를차지했다. 토건부문은아시아에서만 85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중동에서도 53억달러를수주하여 지역별로그로큰수주분포를보여주고있다.

토건 · 아시아지역 수주도 늘어나는 추세

2007년해외건설수주의특징은우선고부가가치 플랜트 분야 위주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970~80년대에는단순 시공 위주의 토목, 건축 공사 위주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플랜트 공사 수주 비중이 급증하여 1997년 28%이던 비중이 2007년현재 61%로증가했다.

다음으로, 2007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한토건분야의수주가고난도공사, 투자개발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과거 우리기업의주력공종이던토건부문은후발 개도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여 2007년대들어매년전체수주의20% 수준에 머물러 오다 2007년 34%로 회복된 데 이어 2008년에도 10월 현재 154억 달러를 수주하여 35%를차지하고있다. 조선소, 교량, 첨단 빌딩 등의 분야에서 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견 주택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참여도활발히추진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2007년부터아시아지역의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금액이 본격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5년과2007년전체수주 금액의 24%에그쳤던아시아지역의수주는 2007년 30%대로올라선데 이어 2008년에도 10월 현재 119억 달러를 수주하며호황을구가하고있다.

중소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도 증가했다. 최근해외건설에대한관심증가로중소건설업체의수주실적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중소기업의수주는 2007년 10월 현재 총 435건 6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47억 달러와 비교하여 37%가 증가했다.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 진출도 국내 발주 물량 축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98건이던 계약 건수가 2007년에는 265건으로 급증했으며 2008년에도 10월 현재 207건 가까이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우리 업체간 또는외국업체와의합작수주역시증가하고 있다. 2005년 14억 달러에 그쳤던 우리 업체간 합작 실적은 2007년 4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외국업체와의합작은 같은기간 28억달러에서 53억달러로증가했다.

업체와 정부의 시장 다변화 노력이 증가하면서신규시장진출도가시화되고있다. 2007년대 초까지 매년 1~2개국에 그쳤던 신규진출국가수는 2007년부터 10개국정도로증가한상황이다.

2007년해외건설수주는수주활동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따라 500억 달러까지도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내년도 400억 달러 수주 규모 유지할 듯

금융위기에따른향후영향에대해우려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업체의 해외건설 수주는 상당 부분 석유 판매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도급 공사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9년에도 급격한 변화 없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400억 달러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집중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 자본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고, 축적된 오일머니 규모가 커 시장 활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Saudi Aramco가 단기적인 시장여건 변화의 영향이 Aramco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별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중동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증산과 관련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발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Aramco는 산유량을 2009년까지 일산 1,250만 배럴로, 2020년까지 1,500만 배럴로 늘릴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의 자금 동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 개발형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미국 및 유럽 투자기관의 자금이 회수되어 부동산 개발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바 있다. 금융 기관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신규 투자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확한 여파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현재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세계경제 침체 영향이 관건

먼저 중동 지역은 미국이나 유럽 자금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그동안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 급증으로 정부의 외화 보유액이 충

분하여 석유 및 가스 처리 시설, 석유 화학 공장 등의 발주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고유가로 GCC(협력이사회) 6개국의 외화 자산 규모는 현재 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런던 소재 글로벌 에너지 조사 센터(CGES)는 2007년 GCC 6개국의 석유 수입을 지난해의 3,280억 달러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5,62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유가를 배럴당 110.달러로, 산유량을 현재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최근 유가 하락과 이에 따른 감소 조치로 어느 정도 수입 감소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규모 오일머니의 유입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발주 물량과 시기에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아 지역은 투자 개발형 사업의 자금 동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초기 단계에 있는 투자 개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신규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 업체의 개발형 사업 수주가 전체 해외 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 해외 건설 수주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요 아시아 시장인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금융 위기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 개발 사업, 또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와 함께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건설 시장이 급랭했던 카자흐스탄의 경우 정부가 석유 수입의 일부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이 점차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

아프리카의 경우 우리 업체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산유국들로서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새로운

해외 건설 진출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 방식의 프로젝트는 재원 조달 부담이 높아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PPP(민관 합작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남미 국가의 경우, 금융 시장 경색으로 사업 추진 중 단사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07년도 전 세계 민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총 1,000억 달러 규모로서 이중 300억 달러 가량이 중남미 프로젝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 불안의 중심지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미미한 상황임으로 이 지역에서의 해외 건설 수주는 특별히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당분간 어려울 수도

한편, 최근 MEE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 해외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주요 관건이 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 위기로 구호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정부의 요구 등으로 인해 당분간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 어렵겠지만, 일부 대형 은행들은 석유 등 자원이 확보된 중동과 성장 잠재력이 큰 BRICs 같은 시장에 대한 파이낸싱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0월 현재 우리 건설 업체들은 400여 개사가 세계 85개국 1,100여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시공 잔액만 8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여러 상황을 보면 앞으로 건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해외 건설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기획팀장